

콘돔 광고와 에이즈, 그리고 노대통령

:: 안 중 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기획이사 · 前 <한겨레신문> 보건복지전문기자

오랜만에 기분 좋은 광고를 보았다. 에이즈 예방을 위해 콘돔 사용을 권장하는 공익광고였다. 에이즈퇴치운동단체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함께 만든 이 콘돔 권장 광고가 전파를 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것도 문화방송 등 여러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텔레비전 채널에서 10월부터 동시에 방영됐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광고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이런 광고는 한 달과 같이 짧은 기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일년 내내 공중파 방송을 통해 방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이즈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정부 당국은 앞으로 관련 홍보 예산을 더 편성하고 방송사는 연중 광고를 내보내는 배려가 필요하다.

콘돔광고 고무적이나 단기에 그쳐 아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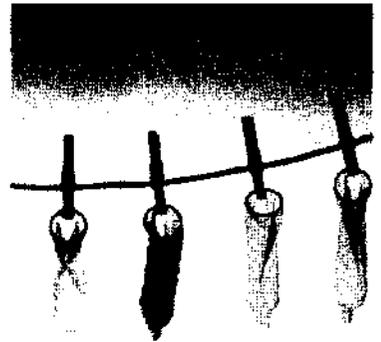
공중파 방송을 통한 콘돔 사용 권장 광고는 에이즈예방 운동가들의 숙원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동안 아무리 광고를 하고 싶어도 번번이 콘돔 광고는 아직 한국에서는 이르다 는 방송사 간부들의 편견 때문에 무산되고 말았다. 필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송사 기자나 방송사 간부들에게 보수적인 사고를 버리고 외국처럼 콘돔 광고를 허용해 줄 것을 이야기한 바 있다.

지난해 세계 에이즈의 날(12월 1일)을 맞아 이날 아침 <한겨레>에 '대통령과 에이즈'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 홍보를 위해 가장 간단하게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콘돔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공중파 방송에서 콘돔 사용 공익광고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중파 방송사 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콘돔 광고는 공중파 방송에서 할 수 없다는 전근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방송 사장부터 이 일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필자의 이 칼럼 때문에 이번에 공중파 콘돔 공익광고가 이루어진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칼럼이 나온 뒤 10개월만에 에이즈 예방운동가들의 꿈 가운데 하나가 이루어졌으니 광고를 볼 때마다 가슴 뿌듯하다.

당시 칼럼에서는 콘돔 공익광고와 함께 유명 연예인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에이즈 예방과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정치지도자



들까지도 소매를 걷고 나서야 한다. 정치인, 특히 대통령이 에이즈 감염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며 이들을 격려하고 가족처럼 대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야말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필리핀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전·현직 국가 원수들은 감염인이나 환지들과 자리를 나란히 하는 일이 종종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이런 자리에 참석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해마다 12월 1일이면 열리는 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는 이야기도 거의 들리지 않는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장관과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내년에는, 아니 임기 중에 단 한번만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에이즈 감염인과 자리를 함께 했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 그래야만 몸과 마음이 가장 소외된 집단인 에이즈 감염인과 함께 한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칼럼이 신문에 실린 뒤 며칠 지나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가 “2004년 세계 에이즈의 날에는 칼럼에서 지적한 대로 대통령을 모시고 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를 치르도록 해보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나에게 전달해왔다.

올해 '세계에이즈의 날'에는 노대통령 참석했으면...

콘돔 공중파 광고에 이어 대통령이 에이즈 감염인과 자리를 함께 한다면 에이즈 예방·퇴치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각종 사회시민 운동 가운데에서도 가장 찬밥 신세인 에이즈 예방·퇴치운동에 몸을 던진 사람들은 보람과 함께 힘을 얻을 것이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가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예방운동 단체, 에이즈 전문가, 에이즈 감염인 단체 등은 한 몸이 되어 노무현 대통령이 감염인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책임이 있다.

이 일은 필자가 현직 언론인으로 있으면서 에이즈를 주제로 쓴 마지막 칼럼의 내용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감염인과 함께 자리를 함으로써 몇 십 명 아니 단 몇 명이라도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일이다. 인간의 생명은 나이와 성별, 직업, 빈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감염인과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서로 악수를 하며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떠는 말기 에이즈 환자를 다독거리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순간, 그는 우리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꿈이 깊어 가는 가을밤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길 바란다. 그 꿈은 오랜 언론인 생활과 에이즈 예방운동을 하면서 꾸어 온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2천여 에이즈 감염인·환자의 꿈이기도 하다.



▲ 지난 10월부터 공중파 등에 방송된 콘돔 광고 중 일부